

디지털 공론장에서 신뢰할 만한 소통은 가능한가?

발표: 김분선(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온라인 공론장의 변화와 디지털 공중의 등장

- 온라인 공론장의 활성화
- 디지털 시대에서 공중이 온라인 환경과 생활 환경의 분리가 불가능함.
- 실제로 민주주의의 참여자들은 디지털 세계 내에서 정보를 찾고 소통함.
- 민주주의 참여자들과 디지털 공중을 구분하기 어려움.
-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디지털 공중은 모든 정보를 디지털 세계에 기반하여 유입하고 개인적으로 정보의 유통을 매개로 소통함.
- 디지털 공중은 온라인 소통을 통해 정치적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충분함.



- 민주주의 통치 시스템의 질적 양상의 변화가 필요함.
- 디지털 공중의 양상 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진단이 필요함.



디지털 소통의 변화 양상에 대한 문제화

환경적 변화로 발생하는 현상적 문제: '데이터 버블', '편향', '탈진실'

관계 맺는 방식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 '사회적 유대'와 '매개 정보 대상화'

디지털 세계의 소통 방식과 소통의 변이적 양상 분석

생활 환경의 불가분 상태에 놓인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 공중이 처한 소통 문제의 원인 파악

정치적 소통의 모델 - 숙의 민주주의적 모델 (Deliberative Democracy)

- 공적 이성이나 의사 소통적 이성에 기반하여 숙고와 토의를 거쳐 정제된(refine) 여론과 정제된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거나 투표에 이르는 대표적인 민주주의의 모델
- 숙의민주주의는 아테네 민주주의의 전통을 가장 잘 계승하다.
-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법
 - 1) 여론의 적극적인 정보 안내
 - 2) 공유 시스템 및 설문조사를 통한 대중(인민, people)의 견해를 확인
 - 3) 특정 토의의 공간에서 아테네 광장에서의 토의와 같은 자유토의 진행

숙의민주주의가 처한 난점(제임스 피쉬킨(James S, Fishkin))

첫째, 정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저조할 경우

둘째, 대중이 특별한 견해가 없는 경우

셋째, 특정한 선호집단 중심으로 특정한 견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발생.

넷째, 언론 조작에 취약하고 선동적인 언론이나 정책적 경쟁 상태에서 조작된 정보의 선전과 캠페인은 숙의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James S. Fishkin, *When the People Speak Deliberative*, New York, Oxford press, 2009)

신뢰를 바탕으로 한 숙의를 위한 조건

- a. 정보(Information): 참가자들이 연관된 이슈들을 믿고 합리적으로 적절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하는 정도(범위, 한계, The extent)
- b. 실재적인 균형(Substantive balance): 한 측면이나 하나의 관점으로부터 제공된 논쟁들이 다른 관점들의 사람들에 의해 제공되는 고려를 통해 응답받을 정도
- c. 다양성(Diversity): 공중 안에서 주요한 입장들이 토의에 참여자들에 의해 대표되는 정도
- d. 건실함(Conscientiousness): 논쟁들의 장점들을 진지하게 숙고하기 위한 정도
- e. 평등한 고려(Equal consideration): 모든 참가자들이 그들에게 제공한 참가자들이 누구인가와 무관하게 어떤 장점들이 고려되는 정도

(James S. Fishkin, *When the People Speak Deliberative*, New York, Oxford press, 2009, p.34)

숙의 민주주의의 보완책으로서의 소통민주주의의 (Communicative Democracy)

자아발전과 소통의 제도적인 문제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

자기 결정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사회 구조적인 지배방식과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점에 주목

숙달된 방식으로 논리정연하게 자기 의사를 표명하는 개인 및 집단은 그러한 환경으로 인해 훈련됨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평가가 특정한 상황과 사회적 맥락들이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

Iris Marion Young, *Inclusion and Democrac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아이리스 메리언 영, <포용과 민주주의>, 강희강, 나상원, 파크영, 2020

소통 민주주의의 모델에서 보완되어야 할 중요한 방법

- ‘호감의 제스처’
- ‘레토릭의 허용’
- ‘누앙스를 포함한 대화’
- ‘네러티브를 중심으로 한 이해’
- 그럼에도 레토릭과 네러티브에 현혹되거나 공중을 비합리적 의사 결정으로 이끌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있음

디지털 세계의 행위 주체에 대한 개념 혼동

“매스 셀프 커뮤니케이션(Mass Self Communication) 방식”을 따르고 이러한 과정에서 정보화를 주도하는 문제

“인식적 행동자(epistemic actor)” VS “행위자(agents)”

현실적 생활 속에서 규범에 부합하는 행위를 추구하는 윤리적 행위 주체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제약된 환경에서 필요한 인식적 판단을 통해 디지털 세계 내의 행위를 결정하는 주체라는 특징이 있음.

(Mathias Risse, “The Fourth Generation of Human Rights: Epistemic Rights in Digital Lifeworlds”,
Published online April 27, 2021, 참고)

온라인 환경에서 변형되는 관계 맺음의 방식

- “강한 유대(strong ties)”: 일반적으로는 가족의 개념과 같이 직접적 관계망의 결속으로 이해함.
- “약한 유대(weak ties)”: 일반적으로는 간접적 관계를 형성하여 발생하는 유대감.
- Pablo Barberá, “Social Media, Echo Chambers, and Political Polarization”, *Social Media and Democracy*, Edited by Nathaniel Persil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0 참조.

나의 주장


- 강한 유대는 규범적 관계 속에서 의무 지워진 결속을 전제로 할 때 사유나 믿음의 체계에 대한 소통은 오히려 약화 됨.
- 강한 유대를 가진 직접적 관계망 안에서의 맺는 가족과 공동의 생활 집단은 자신의 바람이나 욕망, 욕구, 이질적 사유에 관한 직접적인 소통의 대상이 되기 어려움.
- 약한 유대는 무규범적 관계 속에 노출되거나 강한 유대에 비해 책무감을 덜 느끼는 느슨한 책무를 전제해야 함
- 약한 유대를 통해 형성된 집단과 공유하는 동질감의 속성은 정제되지 않은 상태의 자기 사유를 표현하기 유리한 집단이다. 이는 내적으로는 동질화를 강화시키고 자기 합리화 강하게 형성할 수 있음.

온라인 공론장에서의 정치적 소통의 문제와 한계


- 인식적 행동자의 경우처럼 정보를 주도적으로 활용한다는 믿음이 비자발적인 행위자의 상태를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것으로 파악함.
- 정보를 노출하는 데 머물지 않고 정보를 생산하는 새로운 매체의 탄생
- 디지털 세계에서 고안한 새로운 소통의 장치들은 진정한 숙고를 통해 지식을 체화하는 과정은 더 간소화될 것.
- 소통민주주의를 위한 다른 장치들도 결과적으로는 '자기 합리화'를 위한 절차적 합리성만 강화하는 모순적 상황의 가능성

결론

정치적 문제에 있어 생활세계의 소통과 온라인 소통은 그 형식과 내용이 상이함.



근본적인 문제는 체계나 기술 환경과 같은 시스템적 요인이 아니라 그것과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이 매개 정보를 유통하는 삶의 양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라 보아야 함.



정보 활용의 주체에게 발생시키는 끊임없는 '매개 정보 대상화' 과정이 현상적인 진단보다 앞서 확인되어야 정보를 신뢰할 수 있음.